



우리民族과 쓰레기 文化

任 慶 彬

(圓光大學校教授·前 本會副會長)

1. 앞 말

요사이 우리는 쓰레기와 싸우고 있는 느낌이었다. 쓰레기는 土壤을 惡化시켜 生産力을 低下시키고 病菌의 高항으로 되며 水質이 惡變해서 魚族의 生態系가 파괴되어 結局은 人間이 살기 어려운 환경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쓰레기戰爭을 하고 있다.

여기저기 버려진 生活廢棄物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데 소위 경제성장은 폐기물의 생산량을 比例的으로 증가시킨다니 손과 발이 맞지 않는 관계에 있다. 통계에 의하면 지난해에는 전국적으로 약 3천2백만톤의 쓰레기가 나왔고 이것은 하루 평균 8만2천톤의 쓰레기에 해당하고 한사람당 하루 약 2.2kg의 쓰레기를 생산하고 있는 셈이 된다. 또 산업폐기물 발생량은 하루 5만8천톤으로 해마다 13%의 증가율을 가지고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되도록 쓰레기를 만들어낼 原因을 줄여야겠고 동시에 쓰레기의 效率的인 처치가 요구된다. 이곳에서는 쓰레기문제를 우리民族性에 관련시켜 夜話 비슷한 것을 펼쳐 볼까 하다. 題目에 걸맞지 않는 이야기의 展開이다. 本稿를 쓰게된 동기는 며칠전 젊은 候補環境學者가 심포지움에 發表할 원고라 하면서 미리 一讀을 勸해 왔었고 그 내용에 흥미있는 대목이 있어서 이리저리 생각한 것을 적어논 것이다. 다음「읽어 본 말」은 그분의 원고내의 것이고 「생각해 본 말」은 필자의 소견이다.

2. 읽어본 말

우리나라의 쓰레기문제, 그리고 하천오염은 반드시 공해에 대한 우리의 의식부족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민족의 진실의 잔재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하나는 우리나라의 하천은 대체로 急流이고 또 降雨強度가 높아 시내에 버린 汚物은 굽이굽이

휘둘쳐 우르렁 출렁 풍풍 뒤걸러 좌르르 킁킁 하는 시냇물에 휩쓸려 쉽게 먼 바다로 가고 만다. 그래서 汚物을 河川에 버렸던 것이고 그것으로 아무런 마음의 꺼름직한 것이 없었다.

이것이 우리민족의 흐름의 정서, 흐름의 사상이었다.

그 다음은 우리나라는 구미각국에 비해서 多雨高温하기에 有機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려도 쉽게 썩어서 淨化가 되기에 쓰레기의 처리를 문제삼지 않았다. 말하자면 우리의 땅은 살아 있는 땅이고 구미각국의 땅은 죽어 있는 땅이다.

그리고 앞에 말한 흐름(流去)에 관한 말인데 우리민족은 더러운 것은 물에 씻어 보낸다는 철학같은 것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더러운 말을 들으면 귀를 물로 씻었고 갓끈을 씻는 習俗도 있었다. 물은 우리民族의 모든 汚染을 흘러 없애 주는 洗劑일 수 있었다. 그래서 물의 汚染을 생각하지 않는 民族性이 培養되어 있었다.

더 있지만 지면관계로 잘라버리기로 한다. 이곳에 지적해 둘 것은 이러한 論調는 그 분이 想念해서 스스로 만들어 낸 것이 아니고 다른 분이 쓴 글을 引用했다는데 있다. 즉 앞글의 內容은 어느분에 의해서 이미 執筆되었던 것이다. 나는 그 분이 누군지는 모르고 있다.

3. 생각해 본 말

우리의 것을 다른나라의 것과 比較해 본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勿論 쉬운것도 있겠으나 쓰레기와 汚染에 關聯해서 民族性格的인 차이에서 무엇을 찾아 본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한 事實을 두고 우리는 相反되는 兩側面에서 바라볼 수 있다. 正의 側面을 妥當化시키는 材料

만 모아 考察해서도 안될 것이고 負의 側面만을 내다 보는 것은 避해야 할 것이다.

20세기 前半까지 우리社會는 農耕社會였고 農耕文化支配下에서 살아 왔다. 어지간한 都市도 農村에 인접해 있었고 따라서 都市生活도 多分히 農耕性이 많았으며 그리고 都市比重은 대단히 낮은 것이었다. 朝鮮朝 五百年間 農耕社會의 生活를 뒷받침해온 것은 儒家精神이었다.

되도록 빨리 쓰레기 本論으로 들어가기로 하겠는데 立春때가 되면 대문에 開門萬福來 掃地黃金出이라고 주련을 흔히 볼 수 있다. 아침에 起床을 하게 되면 마당에 주인은 나가서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쓰는 것은 그곳에 무엇이 있고 없고 간에 해야하는 일과의 하나였다. 마당을 쓸어 깨끗하게 하면 黃金이 얻어진다는 생각인데 집을 다스리는 主要한 行爲의 하나였다. 이때 마당은 바깥쪽부터 안쪽으로 쓸어갔는데 이것은 黃金으로 생각했던 쓰레기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잘 利用한다는데 있었다. 쓰레기를 매우 所重히 여긴 習俗이었다. 그 중 흙이 있으면 마당의 패여진 부분을 채워 밭로 꼭꼭 밟아 주었으며 다른 찌꺼기는 퇴비장에 버렸다. 농가마당의 한편에는 반드시 퇴비장이 있었고 퇴비는 농경에 없어서는 안될 긴요한 재료였다. 쓰레기는 퇴비가 되는 것이었고 퇴비는 곧 生命의 밑거름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쓰레기는 매우 所重한 것이었다.

이야기가 빛나가는지 몰라도 大小便은 쓰레기중에서도 지금은 가장 더러운 것으로 생각되지만 지난날에는 밥한덩이는 주어도 오줌한덩이는 안준다는 廢棄物 觀念이 있었다. 糞은 字意로서 오히려 堆肥를 말하는 것으로 재를 火糞으로 生草肥料를 草糞으로 또 요사이 말하는 綠肥作物을 옛날에는 苗糞으로 말했고 마구간 거름을 廐糞으로 기름진 흙을 土糞으로 表現했다. 그리고 人糞牛馬糞 등을 말한 것은 물론이다. 그래서 糞은 소중한 쓰레기를 표현한 것으로 이해된다.

요사이 길가 또 庭園이나 公園의 落葉을 清掃夫가 깨끗하게 치우고 있는데 이것은 落葉을 不潔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그 是와 非를 論하지 않겠지만

나뭇잎은 또한 貴重한 쓰레기의 一種이었고 堆肥材料 경우에 따라서는 소중한 燃料였다. 특히 爛葉樹의 잎은 퇴비제조용으로 훌륭했다.

農家月令에 보면 正月中雨水 取庭內外 雜草燒以爲灰, 六月節小暑 刈雜草 及柳葉 細切入廐 七月中處暑에는 六月節에서와 비슷한 作業을 하고 八月節白露 刈山中難草及 橡枝 疎切積置 以資冬春入廐 九月節寒露 刈雜草橡枝(如前月令)이라 있다. 버드나무와 참나무류와 雜草는 퇴비材料로서 좋은 것이었고 集成에도 櫟枝葉 至秋刈取라 있다.

그리고 우리 民族은 소위 白衣民族이라 해서 흰옷을 입었기에 生活環境을 항상 清潔하게 해야만 洗濯의 回數도 줄일 수 있었고 옷의 耐久性에도 도움이 되었다.

다음은 溪流나 河川의 污染에 關한 民族性의 問題인데 이것을 이곳에서 장황하게 重言復言할 수 없고 端的으로 말해서 우리民族은 水質污染을 가장 忌避해 왔던 것이다. 우리나라의 샘물이나 우물은 水質이 世界的으로 뛰어난 生水를 飲用했고 神佛에 祈願을 드릴 때에도 끓인 茶水대신에 井華水를 올렸다.

茶道에 있어서는 물은 茶의 體라 해서 所重히 여겼고 水質 即 品泉을 따졌는데 「흐르는 물은 安靜케 하여 쓰라」고 했다. 流動者愈於安靜(茶神傳). 大觀茶論에도 「山川의 淸결한 물을 쓰면 된다」라고 했다.

山川 즉 산과 물의 精氣를 極히 重要視한 지난날 우리民族은 溪流의 污染을 무서워하고 그것을 피했다. 샘물을 마시는 경우가 많았으나 溪流나 河川의 물을 飲用으로 하는 경우도 흔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서 서로서로 조심했으며 死者의 상여가 지나갈 때 우리는 샘물을 가려 心情上의 污染까지도 막았던 것이다. 그래서 不潔한 物體를 흐르는 물에 버린다는 것은 罪意識에 이어지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河川의 물은 깨끗하게 유지되었던 것이다.

더러운 것은 물로 씻으면 된다는 思考는 우리 民族에 局限된 것이 아니고 모든 民族에 共通되는 思想이었다고 생각한다. 머리에 點水하는 洗禮儀式,

聖스러운 河流에 몸을 담구어 淨化한다는 浸禮儀式 등은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는 洗心行事였다. 堯로부터 王位를 이어받으라는 말을 듣고 더러운 말이라 하여 洗耳를 하였다는 許由를 洗耳處士로 말하기도 하는데 洗耳가 꼭 우리의 것만은 아니었다.

孟子 難妻篇에 滄浪之水 清兮 可以濯我纓 滄浪之水獨兮 可以濯我足이 있는데 창랑의 물이 깨끗하면 그물에 나의 갓끈을 씻어 世上事에 關與해 볼 것이며 그물이 더러우면 발이나 씻고 草野에 묻힐 것이라 하는 대목이 있다. 屈原도 漁父辭에 이말을 그대로 引用하였으며 崔濟愚(東學)의 東經大典에 보면 靑松之靑靑兮 洗耳處士爲友라 있다. 蘇軾은 江水洗我肝이라 읊어서 물로 肝을 씻는다 하는것은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는 뜻으로 반드시 物理的인 해석으로 귀를 물가에서 또 갓끈을 시냇물에 꼭 具體的으로 씻어 그때를 흘려 버린다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다. 要컨대 이러한 思考가 있었기에 흐르는 물은 더러워도 된다는

連結은 成立될 수도 없었고 成立시키지도 않았다. 「흐르는 물은 석자(三尺)만 흐르면 깨끗해 진다」라는 古諺은 流水의 強力한 自淨能力을 表現한 것이지 그것을 빙자해서 河流의 汚染에 無關心했던 것은 아니다.

부엌에서 나오는 구정물조차 모아서 쇠죽물로 이용했던 지난날의 習俗이 있지 않는가.

4. 끝 말

최근 우리의 생활환경이 더러워진 것은 정신 문명이 산업화, 그리고 利己性, 또 非紐帶的人關係로 말미암은 產物이다. 그러나 漸次 環境淨化가 잘 되어 가고 있는 듯하나 문제는 企業들의 利潤追求라는 惡德을 對處해 나가는 國民의 힘이 하루 빨리 더 培養되어 우리 先祖들의 清潔思想으로 回歸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날 우리는 스스로를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깨끗한 삶을 營爲했었다. 이에 쓰레기文化의 散文을 끝낸다.

EC, 환경정책 적극 추진...

에너지稅등 新設 합의

유럽공동체가 내년부터 에너지세와 동식물 보호 기금을 신설키로 하는등 환경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EC는 최근 브뤼셀에서 에너지·환경장관 연석회의를 열어 이산화탄소 배출업소에 대한 세금을 신설키로 원칙적으로 합의한데 이어 5억달러 규모의 자연보호기금을 마련키로 결정했다. 안토니오 쿠나 EC에너지 담당위원은 회의가 끝난뒤 일부 회원국의 반대의견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오는 2천년 CO₂배출량을 현재 수준으로 붙잡아 두기로 한 우리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달리 방법이 없다면서 세액과 징수 방법 등 세부사항은 내년 5월이전에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6월 리오데자네이로에서 열리는 유엔환경개발회의를 앞두고 세계 주요국들이 지구의 보호를 위해 저마다 설득력있는 방안을 마련중인 시점에서 나온 EC의 이번 결정은 여타 국가·지역에도 파급효

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스페인·포르투갈·에이레 등 역내 빈국들은 환경세 신설로 인해 자국의 산업이 위축될 것을 우려, 반대의사를 표명했으며 英國은 태도표명을 유보했다.

프랑스는 재생가능 에너지와 재생불능 에너지를 구분, 세액을 달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자국의 에너지원인 핵에너지 사용에 대해서도 조세가 적용될지 모른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에너지세 신설을 위한 원칙적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EC실무자들은 최종합의를 전제로 한 실무작업에 들어갔는데 세액은 대략 오는 2천년을 기준으로 원유 1배럴당 10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EC장관들은 오는 95년까지 5억달러 규모의 동식물보호기금을 설치키로 하고 기금의 명칭을 「라이프」로 정했다. 동식물을 포함한 자연보호·환경보존등 각종 사업에 쓰일 이 기금은 각국의 경제수준등을 고려한 출연금을 이뤄지며 당장 내년부터 1억7천만달러가 집행될 예정이다.